

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의 이행사례 및 시사점

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(MDCs)를 대체하여,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할 경제, 사회, 환경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인 합의인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를 채택하였으며, 각 국가에서도 이행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. OECD한국대표부에서 기존 조사보고서 및 지표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시사점을 요약하였음.

1. SDGs의 의의 및 국내 이행 필요성

-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목표,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.
- SDGs의 17개 목표는 가난, 식량, 보건, 교육, 성평등, 물, 에너지, 경제성장, 인프라, 불평등, 도시, 소비/생산, 기후변화, 해양, 생태계, 평화/제도, 여행수단.
- SDGs의 이행을 위해 국가, 지역,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예정이고,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설정 등 국별 전략, 이행 및 모니터링체계,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,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, 민간,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의 공동 노력을 요구.
- SDGs이행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기여하고,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 예상.

2. SDGs 국내이행 평가 및 OECD회원국 이행사례

- OECD는 회원국들의 SDGs 이행을 위한 GPS역할 자처, 이행초기 여건과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분석하는 시범사업 실시중.
- OECD의 SDGs 이행초기 여건분석 시범사업 결과 보건, 물은 약 70%, 가난, 식량, 에너지, 도시, 해양은 약 50%, 이미 목표지점에 접근하였으나, 성평등은 약1/3지점에 불과.
- UN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(SDEN)는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공동으로 총 146개국 대상국별 초기현황을 평가 실시(2016년 7월).
 - 우리나라는 총점 72.2점으로 146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는 3위(일본 75.0, 8위; 싱가포르 74.6, 19위), OECD국가 중에서는 25위.
 - 인프라, 소비/생산은 이미 달성, 가난, 식량, 교육, 경제성장, 불평등 해소 등 4개 목표는 주의, 보건증진, 성평등, 물과 위생, 에너지, 도시, 기후변화대응, 해양자원, 육상생태계, 여행수단/글로벌파트너십 등 9개 목표는 미흡으로 평가(총 77개 단위 지표 중에서는 14개 지표가 미흡).

3. 우리나라의 SDGs 국내이행 현황

- 별도의 통합적 이행체계 없이 기존 업무 분장 하에서 SDGs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조정기능 강화 필요.
-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이행체계 구축 필요.

4.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

- SDGs는 정부, 민간, 시민사회 등이 리더십,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·통합적 접근 요구.
 - SDGs초기여건 분석 및 전략적 우선순위 마련, 범정부 SDGs추진체계 구축, 대국민참여 및 소통노력 강화